



#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8주일(묵주기도 성월)  
제30권 46호(다해) 2010-10-10

## [묵상]



나병 환자를 치유해주시는 예수님  
<10세기, 채색 삽화, 국립 도서관, 트리에, 이탈리아>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시던 예수님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중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  
하느님을 찬양하며 감사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들 드린 이 외국인만이  
구원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열 명의 나병환자 중 구원을 얻은 이는 한 명 뿐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병이 낫는데 있지 않고  
하느님을 알아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하느님의 작용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아홉은 왜 그랬을까?  
그저 사제를 찾아가서 보이라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가 있나 했을까!  
특별한 말씀이나 행위로 고치셨다면  
예수님께서 배부셨음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일상 속에 배여 있는 하느님의 작용을 깨닫지 못하고  
하느님의 작용을 자기의 능력으로 여기는  
저희들을 위한 호통이 아니실까.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桓-

martinlee0501@hanmail.net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 7:30                  |
| 목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 7:30                  |
| 금요일 | 아침 미사                        | 오전             | 8: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br>오후       | 8:30<br>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br>오전<br>오전 | 7:30<br>9:30<br>11:00 |

## 주간 행사들

|     |                                                                                                                                                                    |                                                                                   |
|-----|--------------------------------------------------------------------------------------------------------------------------------------------------------------------|-----------------------------------------------------------------------------------|
| 수요일 |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br>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레지오 마리아                                                                                                               | 오후 2:00<br>오전 10:00<br>오후 8:00                                                    |
| 목요일 | 병자영성체 (1째주)<br>성 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성령 기도회<br>예비자 교리반                                                                                                         | 오전 9:30<br>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br>M.E. Sharing(3째주)<br>울뜨레아 (4째주)                                                                                                           | 오전 9:30<br>오후 7:00<br>오후 8:00                                                     |
| 토요일 | 유아세레 (작수달 4번째 토요일)<br>배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후 8: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br>• 성모회/자모회<br>• 대건회/원서회<br>• 꾸리아<br>3째주 - 빈첸시오회<br>• 행사의 날<br>4째주 - 사목회<br>가정의 날 | 오전 중<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1:00<br>오후 2:30<br>오전 9:00<br>오후 1: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피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br>특전미사 | (연) 황학수, 박덕기 카타리나                                                                                                                                 |
|             | (생) 케네스 안드레아 헤밀튼                                                                                                                                  |
| 주 일<br>낮 미사 | (연) 이은완 야고보, 김인영 베드로, 김영수 테레사<br>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김몽돌 요셉,<br>송봉규 요셉, 윤강섭 알베르토, 엄은섭 도로테오<br>정순봉 올리아나, 한병열 토마스, 유봉순 안나<br>구승희 베드로, 서인수 요셉, 박덕기 카타리나 |
|             | (생) 주영석 베드로 & 주성실 마르타 가정,<br>김충섭 마틴 & 정심 크리스티나 가정,<br>오성희 스텔라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 하권(2 Kings) 5,14-17

화답송 ○주님은 당신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 - 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들.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노래 불러라.○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2 Timothy) 2,8-1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복 음 루카(Luke) 17,11-19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토요특전) | 낮 미사  |
|-----|------------|-------|
| 미사곡 | 51-58      | 33-42 |
| 입당  | 228        | 240   |
| 봉헌  | 당신을 향한 노래  | 264   |
| 성체  | 377        | 290   |
| 파견  | 227        | 333   |

##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

### ▶신성 불가침한 인간 생명

사실, 무고한 인간 생명의 절대적 불가침성은 성서가 분명하게 가르치는 도덕적 진리이며, 교회의 전승은 항구하게 이 진리를 확인하고, 교회의 교도권도 이 진리를 항구하게 제시한다. 이러한 일관된 가르침은 "신앙의 초자연적 감성"의 분명한 결과이다. 성령에 의해서 고취되고 지탱되는 이 신앙심은 "모든 이가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표시할 때" 하느님의 백성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무고한 인간 생명을, 특히 그 시작과 마지막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이 절대적이고 심각한 도덕적 불법이라는 의식이 개인의 양심과 사회 안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교회의 교도권은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불가침성을 옹호하기 위해 더욱 빈번하게 설교해 왔다. 이 점을 특히 고수하고 있는 교황의 교도권은, 주교회이나 개별 주교들이 발행한 수많은 포괄적인 교의 문서와 사목 문서들을 통해서 주교 교도권의 지지를 받아왔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역시 간단하지만 통렬한 대목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리로,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주교들과의 일치 안에서, 무고한 인간을 직접,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언제나 지극히 부도덕한 행위를 선언하는 바이다. 인간이 이성의 빛으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불문율은(로마 2,14-15 참조) 성서에 의해 확인되고, 교회 전승에 의해서 전달되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교도권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다.

무고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고의적인 결정은 언제나 도덕적인 악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든 아니면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든 모두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실제로 도덕률에 대한, 실로 그 법을 만드시고 보증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심각한 불순종이다. 그것은 정의와 자비의 근본적인 덕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 어떠한 것도, 어느 누구도 결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 그것이 배자든, 태아이든, 유아이든, 성인이든, 노인이든,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보호에 맡겨진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들은 명백하게든 암시적으로든 이러한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권위도 합법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권장하거나 허락할 수 없다."

생명권에 관한 한 모든 무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절대적으로 평등하다. 이 평등성은 모든 진정한 사회관계들의 기초이다. 이 관계들이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모든 남녀들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진리와 정의 위에 건설되어야 한다. (◆계속)

## 감옥의 소외와 하느님의 말씀의 연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흔히 '소외계층'이라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 분야의 소외계층은 이제 언급하는 것도 부질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경제생활을 주도적으로 꾸려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경제시스템이 촘촘한 그물망의 씨줄과 날줄처럼 상호의존의 구조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그물망에 대다수가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소수의 특징인이 그들의 이익에 따라 그물을 던졌다 거두어들였다 하는 형국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특히 자신과 사회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와 법을 만들 때 참여할 수 없다면, 그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거나 독재사회에 불과합니다.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다루는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중매체는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도, 방해할 수도, 그리고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전인적 완성과 온 인류 사회와 공동체의 행복을 지향"(사목헌장 59항)해야 하지만, 현대 사회의 문화는 매대할 수 있는 수많은 상품 가운데 하나쯤으로 간주되고, 그것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은 전인적 완성과 행복은커녕 생존 그 자체를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누군들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여, 가난하고 힘없이 그리고 초라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또 누군들 그 같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드러내놓고 나서겠습니까? 모두가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과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소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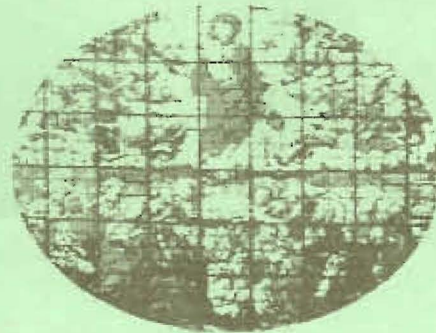
현상은 남아 있고, 오히려 그 정도와 범위는 심각해지고 있을까요?

오늘 하느님의 말씀에서 그 원인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대'의 결집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1독서에서 사리아의 고관 나아만은 한센 환자였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느님의 사람인 엘리사와 연대합니다. 복음에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열명의 한센 환자와 연대합니다. 열명의 한센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장면을 그려봅니다.

그들 사이 인종에 의한 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동행은 "낮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 끼리 반갑다"는 한 하운의 시 구절 그대로입니다. 2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머물지 않았고, 유대 종교의 태두리에 갇혀 있지도 않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곳곳의 가난하고 힘없고 초라한 이들을 당신벚으로 삼아 연대하셨습니다. "선택된 이들"이라 할 수 있는 교회(하느님 백성)는 그분이 하시던 일을 계속(사목헌장 3항)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신수동 성당 주임)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박소영<br>프란제스카   | 이호미<br>엘리사벳  | 신중철<br>아브라함 |
| 제1독서자 | 이태호<br>바오로     | 김교복<br>레오    | 유철희<br>바오로  |
| 제2독서자 | 전지요<br>글라라     | 이희정<br>크리스티나 | 유현자<br>안나   |
| 제물봉헌자 |                |              | P.V.<br>3반  |

### 다음 주 전례 봉사자

| 다음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최태훈<br>아오스딩    | 남성철<br>베네딕도 | 정미영<br>미카엘라 |
| 제1독서자 | 이상용<br>엘리아     | 박진수<br>스테파노 | 이민상<br>요한   |
| 제2독서자 | 서현수<br>율리아     | 황지영<br>안젤라  | 박희자<br>마리아  |
| 제물봉헌자 |                |             | 토런스<br>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10월 목주기도 성월

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에루살렘에서 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루카 24,47

◆ 예비신자 받아들이는 예식 (성탄 세례반)

- 일시 : 10월14일(목) 오후 7시30분 미사 중
- 대부모님과 함께 미사 시작전 30분전에 성전에 오시길 바랍니다.

◆ 안나/요셉회 가을 온천 관광

- 일시, 장소 : 10월19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출발 :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 대상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55명 선착순)
- 회비 : 교우 \$20, 외부인 \$3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겹옷, 타올, 샌들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 총무 ☎(310)738-4387

◆ 소년 소녀 레지오 단원 모집

- 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들
-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하여 본인의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신앙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최기남 야고보 루리아 단장 ☎(310)569-3940

◆ 백삼위 제2회 작은 음악회

풍성한 가을을 맞아 백삼위 가족 모두와 함께 하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자녀들의 다재다능함, 그리고 프로들의 수준 높은 클래식 감상 추억이 깃든 낭만의 밴드와 함께 운치있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 하시기 바랍니다. (악기에서 나오는 감미로운 소리는 모든 분들을 분명 매료시킬 것입니다.)

● 일시 : 10월 24일 (주일) 오후 4시~8시 30분

1부(장소: 성전)

2중창(혼성), 관악 3중주(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현악 2중주(바이올린, 첼로), 관악 2중주(트럼본, 트럼펫)  
피아노 독주, 글로리아 성가대 합창,  
관현 2중주와 독창(첼로, 바이올린), 독창(소프라노)  
독창(테너),글로리아 성가대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저녁식사 (천교장, 무료제공)

2부(장소: 천교장)

- 01.시작 연주(백삼위 밴드)
- 02.구역별 노래-6개구역 및 찬조출연  
(신부님,수녀님,총회장님들)
- 03. 다함께 노래 부르기
- 04. 시상식
- 문의: 김 용 스테파노 ☎(310)926-2248  
김정화 소화 데라사 ☎(310)597-2729

◆ 남가주 여성 제32차 영어 꾸르실료 신청받습니다.

- 일시 : 11월18일(목)~21(주일)
- 장소 : 포모나 꾸르실료 하우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울뜨레아 간사 ☎(310)749-0276

◆ 서예반 제2기 회원을 초대합니다.

- 시간 : 매주 주일미사 후 2층 유아실에서 습작
- 강사 : 일호 박태홍 선생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백삼위 성당 ME

ME 기금모금 음식판매 행사에 협조하여 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10일(주일) : 토런스 서 1반(육개장 \$3)
- 10월17일(주일) : P.V. 3 반 (국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     |     |     |     |     |     |
|----------------------------------------|-----|-----|-----|-----|-----|-----|
| 교무금                                    | 강인모 | 구자운 | 김광자 | 김기석 | 김기정 | 김병조 |
|                                        | 김선제 | 김영경 | 김영길 | 김옥보 | 김용삼 | 김유숙 |
|                                        | 김정애 | 김정웅 | 김정희 | 김종렬 | 김종문 | 김주량 |
|                                        | 노혜숙 | 모은기 | 박상준 | 박씨니 | 박인식 | 박정희 |
|                                        | 박현주 | 방정복 | 배기엽 | 송기철 | 송재훈 | 신순철 |
|                                        | 안연숙 | 안재만 | 엄정자 | 오명섭 | 이귀분 | 이근모 |
|                                        | 이상석 | 이연행 | 이용식 | 이은록 | 장영우 | 정동호 |
|                                        | 정병훈 | 정지숙 | 주대중 | 지경수 | 차병용 | 채양석 |
|                                        | 최희숙 | 하정화 | 한금순 | 한창주 | 한혜숙 | 홍안나 |
|                                        | 황학수 | 영희  | 가보라 |     |     |     |
| 합계 : \$9,506.75                        |     |     |     |     |     |     |
| 미사헌금 : \$2,819.75      2차헌금 \$1,112.00 |     |     |     |     |     |     |
| 성전헌금                                   | 강인모 | 구자운 | 김기석 | 김기정 | 김병조 | 김선제 |
|                                        | 김영길 | 김옥보 | 김용삼 | 김유숙 | 김정희 | 김종문 |
|                                        | 김주량 | 노혜숙 | 모은기 | 박씨니 | 박인식 | 박정희 |
|                                        | 방정복 | 배기엽 | 신순철 | 안연숙 | 안재만 | 엄정자 |
|                                        | 오명섭 | 이귀분 | 이근모 | 이상석 | 이용식 | 이은록 |
|                                        | 장영우 | 정동호 | 정지숙 | 주대중 | 지경수 | 차병용 |
|                                        | 채양석 | 하정화 | 한금순 | 한창주 | 한혜숙 |     |
|                                        | 영희  | 가보라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4795                            |     |     |     |     |     |     |
| 백삼위 ME 성전헌금: \$500                     |     |     |     |     |     |     |

## 공지사항

### ◆ 까리마스 수녀회 생활성서와 신앙서적 홍보 및 보급

- 일시 : 오늘주일 토요일전 미사와 아침, 낮미사
- 한국 까리마스 수녀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생활성서와 각종 신앙서적을 홍보, 보급하기 위해 수녀님들이 본당을 방문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양식이 될 좋은 책을 통해 일상의 삶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 생활성서사 대표 박연례 솔라 수녀

### ◆ 티켓판매 (FIAT 재단 '유진 박 콘서트')

이번 주일에 티켓 판매가 저희 성당에서 있습니다.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이번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백삼위 신자들의 티켓 구입 바랍니다.

### ◆ 본당 비품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시다.

주일학교/한국학교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주시고, 교실 사용 후 책상은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주일학교 수업시간 :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45분
- \* 한국학교 수업시간 : 주일 낮 12시~오후 3시

## 남가주 소식

### ◆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93주년 기념행사 및 미사

- 일시 : 10월13일(수)
- 장소 : LA 성 바실 본당(661 S. Kingsley Dr.)
- 미사집전 : 박기준 라우렌시오 신부

### ◆ 성 마태오 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현유복 신부님 작품전

- 일시 : 10월22일(금)~28(목)
- 개막 리셉션 : 22일 오후 6시~9시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월서블러바드 #502, LA)
- 문의 : 성 마태오 성당 사무실 ☎(818)951-0879

### ◆ FIAT 재단 '유진 박 콘서트' 개최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콘서트가 피아트 재단 주최로 개최됩니다. 북미주 젊은 가톨릭 리더들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이번 콘서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월28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412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티켓가격 : \$35(18세이상 성인), \$25(18세미만 학생)
- 구입 : 웹사이트 [www.fiat.org](http://www.fiat.org)
- 문의전화 : (714)702-9830, e-mail [concert@fiat.org](mailto:concert@fiat.org)

## 이번 주 단체 모임

| 제 단체 모임의 날 | 각 단체별 시간배정 |
|------------|------------|
|------------|------------|

## 다음 주 단체 모임

| 행사의 날, 회장단 모임 |  |
|---------------|--|
|---------------|--|

##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                                  |     |                         |                                           |
|----------------------------------|-----|-------------------------|-------------------------------------------|
| 소공동체 부 장                         |     | 김씨니 클라라                 | (310)612-8840                             |
| 차 장                              |     | 박희자 마리아                 | (310)325-6982                             |
| 차 장                              |     | 이경수 헬레나                 | (310)972-9193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유현자<br>안나<br>320-3697   | 1   | 별혜경 올리아나<br>920-5153    | 남명자 테레사 920-5153<br>10/8(금) 오후 7시         |
|                                  | 2   | 한창주 요아킴<br>530-7702     | 박선화 안나 530-7702<br>10/9(토) 오후 7시          |
|                                  | 3   | 문지숙 엘리사벳<br>800-5612    |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br>10/15(금) 오후8시 성당     |
|                                  | 4   | 정종미 클라라<br>377-4749     | 정종미 클라라 377-4749                          |
| 토런스 서<br>장정진<br>베로니카<br>803-7798 | 1   | 이진향 아네스<br>989-0366     | 김주량 요한 989-0366<br>10/8(금) 오후 7시          |
|                                  | 2   | 이크리스 아가토<br>619-7763    | 정알베르토 791-1374<br>10/2(토) 오후6시            |
|                                  | 3   | 권영옥 루시아<br>720-2876     |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br>10/12(화) 오전 10시30분   |
|                                  | 4   | 이은록 요셉                  | 이은록 요셉 371-4645                           |
| 토런스 남<br>박희자<br>마리아<br>325-6982  | 1   | 이명자 마가렛<br>433-9075     | 최경숙 수산나 433-9075<br>10/15(금) 오후 7시30분     |
|                                  | 2   | 이경수 헬레나<br>972-9193     | 박광자 소화테레사 972-9193<br>10/8(금) 오전 10시30분   |
|                                  | 3   | 안희경 크리스티나<br>750-4051   |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br>10/16(토) 오후 6시      |
|                                  | 4   | 이정훈 안셀모<br>908-8823     | 이정훈 안셀모 908-8823                          |
| 토런스 북<br>최미열<br>클라라<br>895-8624  | 1/2 | 조화숙 안젤라<br>213-272-8393 |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br>10/9(토) 오후 7시 강당 |
|                                  | 3   | 대전희 : 거주지<br>역반으로 배속    |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br>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
| 하버 카슨<br>윤남열<br>세라피나<br>365-9750 | 1/2 | 박혜경 레나타<br>808-5005     | 박홍룡 요셉 808-5005<br>10/9(토) 오후 7시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김명재<br>아가다<br>866-8778  | 1   | 남경희 베네딕타<br>384-3289    | 정훈모 바오로 377-1271<br>10/8(금) 오후 7시         |
|                                  | 2   | 김숙희 유소사<br>544-4807     | 이건영 프란치스코 377-5632<br>10/8(금) 오후 7시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796-6763   | 송준규 미카엘 796-6763<br>10/8(금) 오후 7시         |
|                                  | 4   | 강숙경 도미니카                | 도영옥 수산나 541-0767                          |

## 주보로 배우는 교리

## 성인과 복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 자신의 세례명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바꿀 수 있습니까?

세례 예절 중에 집전 사제가 세례자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유래된 세례명은 13세기 이래로 성인의 이름을 부여받도록 장려되었으며, 현 교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데 성서에서도 아브람-아브라함, 시몬-베드로, 사울-바울로 등의 변화된 이름과 함께 그들의 영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세례명도 자신의 영적소명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별히 신자들은 자신이 택한 성인의 이름을 통해 그 성인을 일생의 수호성인으로 공경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만일 세례명이 부르기가 어렵거나 더 마음에 드는 수호성인을 모시기 원하는 신자가 있다면, 현재의 세례명에 다른 성인의 이름을 하나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라는 세례명에 세실리아라는 이름을 하나 더 첨가한다면 마리아 세실리아라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 우리 나라에는 103위 순교 성인이 있는데 성인과 복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회에서는 생존 시 영웅적인 덕행으로써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분을 가려 성인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복자는 죽은 사람의 덕행성을 증거하여 부르는 존칭 중 하나로서 복자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시복식이라는 교회 의식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순교 성인 103위 중 1925년에 시복된 한국의 79위는 1839년 기해박해와 1846년 병오박해 때 순교한 분들이고 1968년 복자 위에 오른 24위는 1866년 병인박해 때의 순교자들입니다. 복자와 성인의 다른 점은, 성인(성녀)은 전 세계 어디서나 공식으로 공경을 드릴 수 있으나 복자(복녀)는 어떤 지역교회나 단체에서만 공식적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가 아닌 일반인이 복자가 된 후 두 번 이상의 기적이 일어날 경우 시성식을 거쳐 성인대열에 오릅니다. 교회가 선언한 성인이 되면 정식으로 교회 축일표에 수록, 전 세계 신자들이 공경하게 됩니다.



☞ 교중미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사제가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일에 미사예물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봉헌해야 하는 미사를 말합니다.

교중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를 가진 사제가 당일해 해당 본당에서 봉헌해야 합니다. 또한 교중미사는 직책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구장 서리, 교구장 대

행, 본당의 임시 주임사제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장이 아닌 주교와 부주교, 보좌주교 및 부교구장과 교구청 근무 사제, 본당의 보좌신부, 신학교 교수신부, 군중사제에게는 의무가 없다.

한국 교회에서는 포교지방의 특전을 얻어 본당사목에 종사하는 본당신부들은 일 년 중 11번의 대축일에만 미사예물 없이 교중미사를 봉헌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교중미사를 드리는 날 혹시 미사예물을 받고 다른 미사를 드렸다면 그 미사예물은 전부 교구장이 정한 목적에 회사해야 합니다.

☞ 환자가 대세를 받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래 세례는 사제가 집전합니다. 그러나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 곧 임종자에게는 누구라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임종자에게 비상조치로 베푸는 세례를 대세 혹은 비상세례라고 합니다. 대세는 성세성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간략한 세례식이라는 뜻입니다.

대세를 주기 위해서는 우선 임종자에게 기본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즉 사도신경만이라도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입니다. 이상 네 가지 교리를 다 가르칠 수 없고 벌써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평소 세례를 받을 의사와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고 추정되면 조건부로 대세를 줄 수 있습니다. 비상세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의식과 내용을 알면 누구라도 줄 수 있습니다. 세례 성사는 그 성사의 사효성에 의해 하느님 은혜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세를 베풀었을 때에는 즉시 본당에 알리고 임종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 보충예속과 다른 성사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료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정보마당>